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제 1회 서울 국제 건축 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건축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주제는 '건축사(The Architects)'로서 영화를 통해 건축사의 역할과 문화적 성취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새로운 화두와 영화 속에서 건축예술의 표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것이다.

이번 영화제는 건축사가 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태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쿨하스 : 도전과 혁신 Rem Koolhaas : A Kind of Architect, 2008>, <노먼 포스터와 거킨빌딩 Building the Gherkin, 2005>,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2003>, <마천루 The Fountainhead, 1949>,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2005>와 특별상영작으로 <취화선, 2002> 등 5편의 영화가 매일 상영될 예

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과 '관객과의 대화', UCC 건축공모전 시상식과 이벤트 등이 개최되는 폐막식 등이 개최된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02-3415-6800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전라북도는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지난 10월 27일 발표했다.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대상은 소재남, 송문영, 이신혜(전북대)씨의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계획안'이 선정됐다. 또한 계획작품부문 일반부 대상은 (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의 '한지를 쌓다(계획안)', 사용승인부문 대상은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권연하 건축사가 설계한 '전주대학교 EM생활관'이 거머쥐었다.

이번 건축문화상은 총 53점이 접수, 도의원 1명, 교수 6명, 건축사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각 부문별 전체 17작품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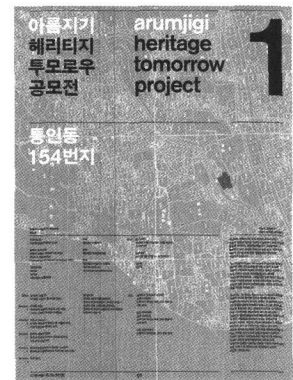
이길환 건축사의 '한지를 쌓다(계획안)'은 중정, 후원, 바람느낌광장 등 전통적인 궁궐의 건축물 배치원칙을 고수하며 건물전체의 형태를 한옥처마의 선을 고스란히 유지한 한국의 흥과 멋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사용승인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전주대학교 EM생활관'은 기존주립의 등고선 상에 배치해 온실, 천장산 등 주변녹지대를 정원으로 활용하고 외부계스트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세대의 독립된 외부정원 설치

는 물론 주거공간의 위계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둔 점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역의 침체된 건축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도내 건축전문가와 건축 관련 3단체(건축사회·건축가회·건축학회)와 협력해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아름지기 한옥 공모전-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개최



재단법인 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에서 이상의 집터에서 내일의 한옥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옥공모전,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Arumjigi Heritage Tomorrow Projec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모전이 아닌, 관련 좌담회 및 세미나,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돼 한옥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인 건축의 사유 환경으로 확대시키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건축사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역사적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모로우 첫 프로젝트는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4번지를 과제로 제시한다. 천재 문인이자 예술가였던 이상이 20년 동안 실제 살았던 통인동 154번지는 1930년대의 근대문화를 기억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중인들이 거주지였고 근대 예술가들의 거점이었던 서촌이라는 장소성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서촌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이 일대 남겨진 한옥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들을 보존하고 미래로 이어주는 새로운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대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담고 있는 통인동 이상의 집터는 도심의 한옥 마을로서의 서촌과 근대 유적지와 인물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아름지기 한옥공모전의 첫 프로젝트에는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소장), Clark E. Llewellyn(하와이대학 학장)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참가자격은 국내의 4년제 대학교(원)건축과 학생 및 건축인으로 건축 설계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헤리티지 투모로우상(1팀) 및 입선(최대 5팀)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되며 모든 입상자에게 '건축가와 떠나는 해외 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전 신청접수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름답기 한옥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문의 : (재)아름지기 교육팀 02-741-8374, www.arumjigicompetition.org

KCC, 농촌 사랑 1사 1촌 자매 결연식 잇따라 열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1사 1촌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KCC는 지난 9월 전주공장 대죽공장의 1사 1촌 자매 결연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먼저 KCC 전주공장(공장장 최선봉)은 지난 9월 15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도계마

을 회관에서 농촌사랑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농촌의 실익 증대에 기여하고, 자매 결연을 통해 기업과 농촌이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게 되었다.

최선봉 공장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도계마을과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사 1촌 운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KCC 전주공장 측은 이날 행사에서 도계마을 주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 CCTV를 전달, 설치하는 등 농촌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KCC 대죽공장(공장장 박성용)도 9월 17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3리 마을 회관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KCC 대죽공장 측은 앞으로 어송3리 마을의 농촌일손 돕기와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KCC 대죽공장은 이날 자매 결연식 행사에 앞서 어송3리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기를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등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KCC,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KS 1급, 숲으로 SE' 출시



KCC는 최근 가격적 부담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한껏 향상시킨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KS 1급, 숲으로 SE'를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수 십년 간 축적되어 온 KCC의 우수한 기술력과 친환경 페인트의 대표 브랜드 '숲으로'가 만나 탄생한 고기능성 친환경 수성 페인트이다.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품질과 친환경성, 그리고 작업자의 편의성 모두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면서도 가격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내 페인트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숲으로 수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국내 KS의 품질 기준은 물론 글로벌 품질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특징은 온도변화 및 희석율에 따른 점도변화의 최소화, 수지와 입자 크기 변형을 통한 도막의 강도, 부착성 및 내세척성 향상 그리고 안료의 패키징(Packing)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후도막으로 인한 크랙 발생을 개선하였다. 또한 페인트 흐름성의 최적화 및 부드러운 롤러 작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람의 작업성까지 개선한 것이 돋보인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